



창신교회, 담임목사 위임 및 원로목사 추대식 거행

석진성 목사 담임 위임 · 이종복 목사 원로 추대

서울지방회 창신교회(석진성 목사)가 지난 5일(토) 오후 2시에 석진성 담임목사 위임 및 이종복 원로목사 추대식을 가졌다. 먼저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인 진순천 목사(성은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서기 이강호 목사(평강교회)의 기도, 서울지방회 부서기 이규현 목사(마포제일교회)의 성경봉독, 창신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의 '내 평생 소원 이것 뿐'이란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2부 석진성 담임목사 위임식은 서울지방회장 이 규 목사(시티미션교회)의 사회로 위임목사 소개(김재철 장모), 서약, 위임례(장지호 장모), 공포, 위임패증정(서울지방회), 축사(영성 - 이분장 목사, 김성진 목사, 김명전 GoodIV 대표이사, 스캇 쾰위스트 총장, 박철홍 목사, 송태근 목사, 조정민 목사)와 최종인 목사(평화교회)의 권면, 위임목사 인사, 부교역자 축하 등으로 마쳤다. 3부 이종복 원로목사 추대식은 석진성 목사(창신교회)의 사회로 원로목사 소개(다큐멘터리 영상), 추대사(장선일 원로장모), 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의 공포와 추대패(김영복 원로장모), 공로패(예성교회), 감사패 전달(서울지방회, 국내선교위원회), 이운구 원로목사(은퇴원로목사회 부회장, 시티미션교회)의 축사, 원로목사 인사, 주빌리 중창단과 원로목사 가족의 축하, 인사 및 광고(안경석 장모), 이제원 원로목사(전 총회장, 코디엔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종복 목

사는 광주 운광교회, 누저지 동신교회, 생명수생교회(구, 운광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며 광주지방회장과 미주 예성 부총회장을 역임하였고, 뉴욕 운광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회하다 2005년 창신교회 5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이후 20년간 창신교회에서 시무하며 교회 부흥과 지역사회 봉사, 국내외 선교활동에 힘써 왔으며, 서울지방회장, 예성 총회장(93회)을 역임하며 교단 발전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다.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석진성 목사는 미국 고든콘웰 석사와 예일대학교 석사, 트리니티 구약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2017년 귀국하여 성경대, 미국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등 여러 국내외 신학교와 기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으며, 시니어 매일성경 집필 및 GoodIV 훈민복음 강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는 창신교회 우편성전을 담당하여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며 코비드 기간에도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다 창신교회의 청빙절차를 거쳐 6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창신교회는 2025년 1월부터 석진성 목사를 후임목사로 세워 은혜로운 승계를 준비하였고 6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석진성 목사는 5대 담임목사인 이종복 원로목사의 뒤를 이어 창신, 우편, 양평의 세 성전을 하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며 각 성전의 예배 회복과 지역의 복음화, 다음세대 교육부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예성 교단과 다음세대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

(창신교회 제공)

좋은이웃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창립 37주년 맞아 더 견고히 이웃과 함께하는 계기로 삼아”



안양지방회 좋은이웃교회는 7월 6일(주일) 오후 2시 창립 37주년을 맞아 원로목사 추대 및 2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공로·원로장모 추대식도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이승근 목사(우리교회)의 집례와 서기 김진도 목사(참빛누리교회)의 기도, 부서기 엄영호 목사(산돌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예성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의 '이제 후로는'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진 2부 예식에는 김윤석 목사의 사회로 공로장모(백남주, 송후석) 및 원로장모(김철수, 박래경) 추대식이 진행되었으며, 3부는 안양지방회장 백운필 목사(세게로교회)의 사회로 김윤석 원로목사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원로로 추대된 김윤석 목사는 “지난 목회 여정을 큰 과오 없이 마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좋은이웃교회

와 하나 됨의 신비를 체험했듯이 앞으로 남은 후속까지도 하나 됨의 신비를 통해 복음사역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4부 2대 담임목사 위임식을 통해 새롭게 취임한 서민기 목사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충성하여 언제나 성도들 곁에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좋은이웃교회는 1988년 7월, 김윤석 목사가 개척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이래, 한 생명의 가치를 보는 눈과 이웃의 아픔을 듣는 귀와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힘있게 사역해 왔다. 이번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한다.

안양지방회주재기자 김진도 목사

백운호수교회 · 새에덴교회 연합 캄보디아 단기선교 비전트립

‘주님의 열정으로 캄보디아를 품으라!’



‘주님의 열정으로 캄보디아를 품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난 7월 6일(주 - 11일)까지 백운호수교회(박영수 목사) 14명, 새에덴교회(김영국 목사) 11명 총 25명이 3월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첫날은 프놈펜 교 손양원 목사님 손자 손성철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농아인 센터에서 선교물품들을 정리하고 거리에서 어린이사역과 전도사역 심방사역(후원하는 아이들 집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방학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100여 명 이상 찾아와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온 동네 잔치가 되었다.

지역에는 청년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미리 함께 준비한 찬양을 캄보디아어로 한국어로 동시에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있었고, 6년 전 단기선교 때 학생이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함께 바닷에 함께 부름 받고 기도하며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날에는 다깨우 시골 지역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거리전도가가호전도 및 세례식 그리고 이따옴 사역과 세족식과 집회가 있었는데, 수백명의 아이들이 몰려와 복음을 받아들였고 48명의 어른들이 세례를 받았다.

75명에게 세족식할 때 단원들이 발에

키스를 하고 정성껏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잡고 있드려 기도할 때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셋째 날은 캄뽕동이란 시골마을에 호텔 수영장을 빌려 28명에게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침례를 통해 감격과 기쁨이 넘쳤다.

백운호수교회가 세운 캄뽕동 백운호수교회 헌당예배와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 안 온 줄 알았는데 비를 맞으며 수백명의 아이들과 100여 명의 어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교회헌당을 위해 헌신한 권사님, 그리고 교회 담임교역자 학비를 매달 후원하는 권사님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여 더 큰 은혜가 넘쳐났다.

이 사역들을 준비한 프놈펜에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문산섭, 서혜원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단장으로 수고한 김명균 장로님과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지난 20일(주일) 오후 백운호수교회에 단원들이 모여 7분짜리 단기선교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해단식을 하였다. 연합하여 감당한 단기선교는 축복과 은혜 그 자체였다.

(김영국 목사 제공)

서울중부지방회 청년연합, 몽골선교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

34개 교회 연합 1천만원 후원 · 놀이터 건립 프로젝트 완성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17명의 청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를 주제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몽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선교는 현재 몽골에서 사역 중인 김수연 선교사(성결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가정과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회 소속 34개 교회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1천만 원을 후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년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들이 연합한 것이다. 특히 선교팀의 파송과 환경을 위해 임원단과 지방회 목회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공항에서 배웅하고 맞이하는 섬김을 보였다. 이를 경험한 한 청년은 “목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부지방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했다.

선교팀이 섬긴 바양주르흐 기독교회는 빈민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인근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는 앞마당을 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었으나, 필요한 1천만 원 중 80만 원만 모인 상태였다.

청년선교팀은 현지에서 재정을 아껴 팀원 각자가 10만 원씩 총 170만 원을 헌금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귀국 후에 일어났다.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아름다운

운본교회(황규정 목사)가 원래 우물 파기 용도로 준비했던 700만 원을 놀이터 건립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750만 원을 헌금한 것이다.(헌금 현황:바양주르흐 기독교회 성도들:80만 원, 서울중부지방회 청년연합선교팀:170만 원, 아름다운본교회:750만 원 총계:1천만원 (목표액 정확히 달성))

목표액이 정확히 채워짐에 따라 바양주르흐 기독교회는 7월 21일부터 전 교인이 함께 놀이터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완공 후에는 서울중부지방회 임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완공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맺어진 인연은 미래로 이어진다. 바양주르흐 기독교회와 서울중부지방회 청년연합선교팀은 2030년 함께 연합선교팀을 구성하여 러시아 선교를 가기로 약속하고 현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한 참가자는 “하나님께서 몽골 아이들을 위해 바양주르흐 기독교회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으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마무리를 주셨다”며 하나님의 섬김을 고백했다.

이번 선교는 개별 교회를 넘어선 지방회 차원의 연합과 한국과 몽골 교회 간의 협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 공유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박종대 목사

미주서부지방회 제23차 정기지방회 개최

지방회장에 김상현 목사 추대



제23차 미국서부지방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7월 20일 가느그로브 성민교회에서 개최되어 23회 지방회장으로 김상현 목사(남가주주안교회)를 지방회원 민장임지로 추대했다.

특별히 이번 정기지방회에서 임시영 목사(신수동교회)를 특별 감사로 초대하여 ‘성경중심의 본분 해석 및 설교’의 주제 강의를 통해 미주 지방회 목회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번 지방회에서 두 명의 전

도사(김영, 다니엘) 홀가시취 심사를 통과 하였으며 지방회 마무리는 시취에 통과한 두 전도사들을 위해 모든 지방회원 목회자들이 두 손 들고 간절히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며 정기지방회를 마쳤다.

다음은 신입원 명단.

▲회장:김상현 ▲부지방회장:신장호 ▲서기:김영웅 ▲부서기:박재웅 ▲회계:정신구 ▲감찰장:박환우.

(미주서부지방회 제공)

안양지방회 교사 페스티벌 개최

“다음 세대 단절 위기에 교사의 헌신이 필요해”



안양지방회 주최로 열린 ‘2025 교사 페스티벌’이 6월 21일(토) 안양교회(강대일 목사)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1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고 사명을 회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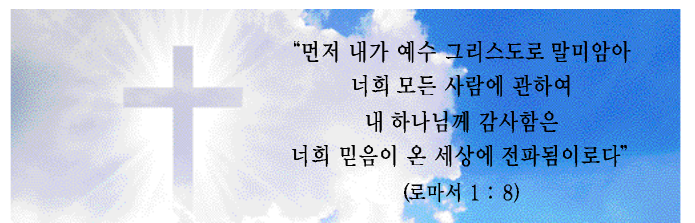
점심식탁 교제 후 솔라피데(성결대학교)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페스티벌을 시작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뜨겁고도 경건했다. 감사 김상인 목사(움직이는교회)는 ‘복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학생의 복음화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산지역 다음 세대의 예를 들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한 명의 학생을 학교에 선교사로 보낸

다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교사들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했다.

교육부장 김석태 목사(동안교회)는 “더 많은 교회와 교사들이 참석해서 ‘부름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했으며, 또한 교사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한 아이의 영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맡겨진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2025 교사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사역의 중심에 교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안양지방회주재기자 김진도 목사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8)